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09년도 표어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고통

(시편 119:65-88)

시인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신실했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말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고난의 목적, 고난의 근원, 그리고 목표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다루고 있지만 고난이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말은 '선하심(good)'이라는 말입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1. 고난의 목적

고난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은 하나님께 순종의 길로 가게 하는 교정을 위한 고난이고, 어떤 고난은 소망을 이루는 건설적인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고난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목적은 우주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또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도록 하십니다. 마틴 루터는 '내가 고난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나는 항상 내 최고의 선생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았다' 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기도 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고난에 던져 넣으시기 전까지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2. 고난의 근원

고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성실하십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3가지를 기도합니다.

- ① 교만한 자들이 부끄럽게 되도록
- ②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시인을 보고 격려를 얻도록
- ③ 자신이 주의 율례대로 살므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3. 고난의 결과

스필전 목사님은 '이 시는 매우 어두운 흑암이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별들은 더욱 반짝인다. 어둠에는 새벽의 약속이 있다' 고 말씀합니다.

84절은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언급이 빠진 절입니다. '시인을 핍박하는 자를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 그들이 나를 위해 웅덩이를 팠고, 나는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주의 법을 따르오니 주의 사랑으로 살려 주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의 법을 더욱 잘 지킬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성실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Suffering

(Psalm 119:65-88)

The psalmist says that suffering came to him because he was faithful to God's word. This psalm gives us three points regarding the Christian life: the purpose of suffering, the origin of suffering, and the goal of suffering. This psalm also gives us God's purpose for suffering although it does not often mention the word 'suffering.' Here, the important word is 'goodness.'

1. The purpose of suffering

All people are afflicted in common. But people are led into suffering in God's way of obedience for different reasons. Some suffer in order to be corrected by God, to find their hope by God, or to glorify Jesus Christ.

The purpose of suffering given by God is universal. God allows us to learn to obey His words, and to understand His word through suffering. Martin Luther said, "I did not understand the meaning of God's word until I was afflicted. I always found my greatest teacher in His words." He knew and taught His word well, but he did not understand the profound meaning of His word until he was thrown into affliction.

2. The origin of suffering

The origin of suffering is the Lord. God is trustworthy in suffering. The psalmist prays to God with the following three subjects in the midst of suffering

- (1) To make the arrogant be put to shame
- (2) To encourage those who fear God
- (3) To make those living according to God's decrees not to be dishonorable

3. The result of suffering

Charles Spurgeon says that "this psalm is pitch, black darkness. But in the midst of the darkness, the stars twinkle brightly. There is promise of daybreak in the darkness."

One particular verse does not mention God's word (Ps. 119:84). The psalmist prays, "When will you punish my persecutors? They dig pitfalls for me, and have almost wiped me from the earth, but I have not forsaken your precepts. Preserve my life according to your love." If so, he says that he will obey the statutes of God.

My beloved congregation!

God has made His people understand His way. So we must pray that He will give us His grace to awaken to His commands.

By being faithful to God in the midst of suffering,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live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suffering that God has given u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BS(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이종윤 목사 마태복음 강해설교 마치다

- 4년 10개월의 대장정 -

다음주 찬양예배부터 로마서 강해 시작

2004년 10월 3일 주일찬양예배부터 시작된 이종윤 목사의 마태복음 강해설교가 4년 10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마치고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예수님의 족보”(마 1:1-7)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마태복음 강해설교는 오늘 “그리스도의 대명(大命)”라는 제목으로 마무리 된다. 이종윤 목사의 마태복음 강해설교는

그 동안 『마태복음 I권』으로 출간되었고, 이번 주간에 II권이 출간될 예정이며, 테이프로도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강해가 시작된다.



성경통독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

- <10독> (5교구) 이윤영 권사
- <5독> (2교구) 윤만현 권사
- <2독> (9교구) 김진숙 권사
- <1독> (6교구) 김숙자 권사 (8교구) 손영희 집사 (11교구) 천기성 집사 (12교구) 정희순 권사 (16교구) 김명숙 권사

2009년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 접수 시작

8월31일(월) 개강
오늘부터 사무국에서 접수

8월31일(월)부터 개강하는 2009년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열린 프로그램은 우리 서울교회의 목표인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를 이루기 위해 서울교회 성도들과 이웃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교양강좌를 매년 2학기(봄, 가을) 개설하여 성도들과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강의를 계속해오고 있다.

이번 주일 주보에는 8월31일(월)부터 시작되는 2009년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브로슈어가 간지로 함께 넣어졌다. 서울교회 성도들은 브로슈어를 참고하여 한 성도 당 한 과목 이상씩 수강하기 바란다.

열린 프로그램 신청접수는 오늘부터 사무국에서 받고 있으며 수강료는 한 과목 당 10,000원이다.

2009 열린바자 표어 공모

8월16일 ~ 31일 까지

열린바자준비위원회 (위원장: 이복규 장로)는 오는 9월 24일(목)과 25일(금) 이틀간 진행되는 '2009 열린바자'를 위한 표어를 공모한다. 열린바자의 목표와 의미를 쉽게 나타내는 내용으로, 독창적이며 발음하기 쉬운 표어를 기다리고 있다.

(예시) 2009 서울교회 열린바자, 행복한 나눔실천

응모할 성도들은 누구나 서울교회 홈페이지(www.seoulchurch.or.kr)에 회원 가입한 뒤 '2009 열린바자 슬로건 공모 이벤트' 페이지로 들어가서 1인당 1개씩만 입력해주시기 바란다. 응모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자정까지)로 입상작은 홈페이지와 순례자에 발표하며, 대상1명, 우수상 2명을 뽑아 시상할 예정이다.

박노철 목사 동사(同使)목회 시작되다

교구, 교회학교 및 각 기관 심방 예정

이종윤 위임목사와 박노철 전도목사와의 본 교회 동사 목회가 시작되었다. 서울교회 제2대 담임목사로 청빙되어 호산나대학 학장으로 부임한 박노철 목사는 어제 8월 15일 아가페타운에서 개최된 장로 가족 수련회에 참석하여 특강을 함으로써 서울교회에서의 목회를 시작하였다.

박노철 목사는 미국에서 신학수업을 했기 때문에 2009년 가을 학기부터 2010년 봄 학기까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 Div.)에서 1년 동안 청목과정을 거쳐서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서울교회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함으로써 제2대 위임목사로 부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앞으로 박노철 목사는 주일마다 각급 교회학교를 1개월씩 참관하면서 교사와 학생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주중에는 16개 교구를 한 달씩 교구목사와 함께 심방하면서 교구를 파악하고, 각 전도회와 선교회 월례회 및 각 기관별 모임에 참석하게 된다.

천국시민양성

이 존영의 때를 빼앗기지 않도록...



주현민 성도
(할렐루야 찬양대, 청년 2부)

부족하기만한 저에게 서울교회를 통해서 3학기동안 장학생으로 인도하여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사를 드립니다.

단지 물질적인 감사가 아닌, 서울교회를 섬기던 시간 동안 얻은 많은 가치있는 것

들로 인해 저에게 장학금은 더욱더 의미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07년도 4월에 제대하여 잠시 고향집을 들른 후 군복을 입은 채 곧바로 서울로 올라와 서울교회를 찾았고, 아버지의 지인이신 고성진 집사님이 지휘하시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동이 이어져 수요일예배를 드리다가 시온 찬양대에서 또한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대 후 지금까지 서울교회를 섬기던 시간들이 제 삶의 가장 큰 전환점이자 새 삶의 시발점이 된 것은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저를 하나님께 붙들린바 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온 것은 이종윤 목사님의 확고하시고 분명한 말씀 선포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지만 고향에서 교회를 개척하시며 당하시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로 인해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파 어둠 속을 방황하며 교회와 부모님

을 거부한 적도 있으나 결국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큰 믿음의 유산은 저의 가장 튼튼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고향을 떠난 저의 타지 생활은 오로지 방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자 하는 몸부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대 속에 지원하여 간군대에서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게 된 서울교회, 자아가 깨어지려 하는 그 때, 아니 깨어지고자 하던 그 때 이 목사님의 말씀 선포는 오랜 세월동안 흔들리던 저의 믿음에 확신을 심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고 갈급하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저는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이 말씀을 뿌리로 삼아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귀하고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우고 받으며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힘겨워 하던 새벽기도를 고향땅 교회에서 시작하여 서울교회에서 살을 붙이고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배 시작 전 찬양대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 목사님의 기도 중에 “이 존영의 때를 빼앗기지 않도록...” 이라는 한 구절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 마음 속에 힘이 되고 회복제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며 무슨 일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제 한 평생 하나님의 확고한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전심으로 온전히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만민에게 전도 -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우리의 선교는 계속 됩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의 도구로 봉사할 뿐’



인면농양 제거 중인 의료선교팀

노제현 집사(16교구)

이번 의료선교팀은 부장이신 하인선 장로님께서 올여름 캄보디아 단기선교에 의료선교회가 동참했다면 좋겠다는 권면을 하실 때, 회원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성되었습니다. 이후 6월부터

매주일 모여 기도하고 준비하며 진료에 필요한 약품과 기구들의 목록을 만들고 준비하는 동안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하면 떠오르는 것은 'Killing Field'라는 단어지만, 최근에 복음이 왕성히 전파되고 있는 곳이라고 해서 내심 그 땅에 한 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이동하는 차창을 통해 본 거리의 풍경은 여느 개발도상국과 별반 다르지 않았



진료 후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노현성목사와 권혁우집사

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의 질환도 위장병, 영양결핍, 설사, 관절염, 종기, 근시, 의상편(안과질환), 백내장 등으로 여느 후진국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환들은 한 번



상이군부대에서 캄보디아 어린이들과 함께 한 단기선교팀

진료하고 며칠 분의 약을 복용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점은 단기 의료사역의 한계입니다. 질병은 환경, 식생활, 문화적인 것들과 연관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좋아지지 않

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족한 장비와 언어소통의 문제를 안고 진료하는 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각하면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의료사역을 행하는 것은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의 도구로 봉사할 뿐'이라는 믿음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교는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비인후과 진료 중인 안인호 집사

만민에게 전도 -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쁘레야 예수 쓰럴란 네아

손영호(대학부)

쁘레야 예수 쓰럴란 네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올해 말에 군대를 가야하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3월부터 단기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캄보디아를 향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세계선교대학을 수료하고, 목요정기모임을 통해 훈련을 받은 후 드디어 8월 3일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상이군부대에서 이미용사역 중인 권사님들



91특전부대에서의 어린이 사역

교팀이 프놈펜에 도착했고, 다음날 상이군부대에서 의료사역과 함께 이미용 사역, 어린이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머리를 깎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특히 1여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치료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갔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주로 어린이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1주일을 사역하고서 주일에 마하나임 선교센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이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에 왜 저를 보내셨는지

다. 첫 사역지는 포병여단이었습니다. 그 곳에서 만난 아이들은 천사같은 순수한 눈망울을 가지고 처음 본 우리들을 친숙히 여기며 잘 따라와주어 곧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의료선



1여단에서의 환자 진료

개닫게 되었습니다. 9박 10일간의 우리의 사역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 뿐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캄보디아 단기선교는 이제 끝났지만 그곳을 향한 우리의 선교는 계속 됩니다. 캄보디아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캄보디아의 증인으로 세우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한방 침술 치료 중인 김영주 집사



포병부대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한 성경공부

8.15 광복절 특별 기고문

광복절과 한국교회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다. 1945년의 첫 광복절은 자유와 해방의 빛을 다시 회복한 기쁨의 날이었다.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이 라디오 방송으로 알려지자, 전국의 사람들이 기쁨에 겨워 덩실 덩실 춤을 쳤다. 자유를 알리는 종소리가 교회에서 널리 울려 퍼졌다.

그러나 뜻밖에 주어진 자유와 해방으로 말미암아 혼돈스럽고 폭력성을 띤 불미스런 일이 여기저기에서 간혹 일어났다. 8·15광복의 그날에 경상북도 풍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 흰 옷 입은 군중들이 거리를 가득 '일'로 정해 이를 메웠고, 저마다 광복의 기쁨으로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부르며 돌아 다녔다. 얼마 뒤에 군중들은 일제의 신사(神社)가 있는 관공서로 몰려갔다. 그들의 손에는 도끼를 비롯하여 각종 연장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경찰지서, 풍기 초등학교, 풍기면 사무소에 있는 신사를 도끼로 찍어내고 삽과 괭이로 부수고 발로 짓밟았다.

8·15광복 직후에 한국 장로교회는 일제 식민지배 시대의 잔재를 청산하려다가 전혀 뜻하지 않은 논쟁과 분열에 휘말렸다. 그해 8월 17일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저항하여 평양의 감옥에 갇혀있던 교역자 등 20여명이 출옥했다. 약 50명은 옥사하였다. 이들은 꿈속에서도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고, 평양 산정현교회로 모였다. 거기서 약 두 달 동안 지내며 신사참배 굴복과 더불어 무너진 교회의 재건에 관하여 논의했다. 9월 20일에 이들은 교회재건을 위



임익국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사)

8·15 광복의 기쁨은 잠시... 교회분쟁과 교단분열로 고통

교회 연합은 칼빈의 유산 한국장로교회의 일치 이루길...

한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부산에서도 '출옥성도' 들을 중심으로 '경남 재건노회' (1945. 9. 8)가 모였다. 8·15광복과 더불어 교회가 새롭게 출발을 하려면 지나온 과거 곧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이 과제를 논의했다.

1946년 6월에 남한의 교회만이 모인 '남부총회'에서 신사참배 문제가 거론되었다. 총회는 1938년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했다. 아울러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날에 해당되는 주일 하루를 '통회자복'을 요청하는 교인들이 보기엔 그저 눈가림에 불과했다. 이들은 "최소한 두 달 동안 회개하는 기간을 갖자"고 요구했고, 총회는 그 기간을 단 하루 동안만으로 정했다. 더욱이 총회는 신사참배에 굴복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징계조치에 대하여는 언급조차 없었다. 교단의 논쟁이 파도처럼 크게 일어났고, 1950년대에 장로교회가 세 차례나 분열되었다. 그 결과 4개의 장로교회 교단이 생겼다. 8·15 광복의 기쁨은 잠시 뿐이었고 교회분쟁과 교단분열로 말미암은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분열된 장로교회가 반세기 이상 그 상태로 유지되거나 더욱 여럿으로 분열되었다. 이러한 때에, 올해 우리는 칼뱅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여 '장로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여러 모로 노력했다. 교회일치는 칼뱅의 신앙유산인바, 한국 장로교회가 그의 가르침에 따라 가시적인 일치를 이루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광복절을 맞아 출옥하는 성도들
(사진: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화보집)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가브리엘찬양대 지휘자이며 미리암 여성선교합창단 지휘자인 메조소프라노 김정희 권사의 독창으로 드러진다. 연세대 음대와 독일 아우그스부르크 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 American Conservatory of Music, 연세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서 강의한 김정희권사는 정확한 발음과 메시지를 전하는 강한 호소력으로 '내 진정 사모 하는 (J.R.Murray)' 외에 3곡으로 찬양 드린다. 반주는 이영수교수(영남대 음대)가 제작한 Orchestra Sound Track을 사용한다.

제36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1차 브로슈어 발송 8월19일(수) 104호

9월7일(월)부터 시작되는 제36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알리는 브로슈어 발송 작업이 8월19일(수) 시작된다.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한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봉사가 요청된다. 봉사를 원하시는 성도들은 19일(수) 오후1시까지 104호 응접실로 모이면 된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8월 17일(월) 장신대 여동문화 여름수련회 개회예배 설교를 한다. 21(금) 총회 표준주석 집필자 모임을 소집한다.
- 수상: 3교구 김상철 장로 (미래한국대표) 제2회 우남애국상 수상 8교구 김수정 성도 (예루살렘 찬양대 반주자) 제1회 한국음악협회 반주 콩쿨 기악부문 1등 수상
- 득녀: (16교구) 김병귀 성도 박선미 성도 8월14일
- 이사: (3교구) 우종암 성도, 강남구 도곡동 역삼역키아파트 108동 703호 T. 010-219-1300 (11교구) 유성래 성도,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셀힐리아파트 223동 506호 T. 552-4529
- 주간식당봉사: 리브가전교회(8월16일) 당회원 (8월23일)
- 금주의 식사: 교회제공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2. 여름 수련회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3. 아가페타운 건설 공사 위하여
4. 칼빈길 명예도로 시행되도록
5. 공의와 질서가 회복된 사회 이루고 북한의 전쟁위험은 사라지도록

교회오시는 길

